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26일)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더 이상 이런 일 없어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9월 16일 '역무원 피살 사건' 발생 현장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 '추모의 장소'를 찾아 헌화한 후 종단 스님들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단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 광폭 '소통' 행보

불교계 내부로는 '만남 · 대화'
권역별 본사 릴레이 간담회
전국비구니회서 현안 청취도

대사회문제엔 '참여 · 동행'
9월 16일 '신당역' 직접 찾아
"사회적 문제도 외면 않겠다"
춘추관 장애 작가 전시회 관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최우선 종책기조로 내걸었던 '소통'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불교계 내부로는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등과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대화의 장을 열고, 외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대사회 현안에 직접적인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당선인 신분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광폭 행보인 만큼, 각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실현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9월 28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불교계 안팎에서 분주한 활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월 15일 담양에서 호남 및 제주권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만나 종책 공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데 이어, 다음날인 16일에는 전국비구니회관을 방문해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간담회를 열어 비구니 스님들이 직면한 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청취했다.

스님은 앞서 지난 8월에는 강원권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또 9월 5일에는 경기 및 충청권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별, 분야별 릴레이 만남을 이어왔다. 특히 권역별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는 진우 스님이 내건 또다른 핵심 종책기조인 '교구' 실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전국비구니회 간담회를 계기로 차기 집행부를 향한 비구니스님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16일 진우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종단 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확대 △교구별 비구니 공동수행시설 및 요양원 건립 △선학원 도제의 권리제한 완화 △복지 전담부서 신설 △2023년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제18차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 개최에 대한 종단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를 주의 깊게 경청한 진우 스님은 즉각 사안별 검토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진우 스님이 당선인 신분으로 이례적일 만큼 적극적인 소통행보에 나선 것은, 종책 공약을 대중에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에 기인하고 있다. 스님은 단일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면서 선거운동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선인으로서 이례적인 광폭행보는 취임 전 각계와의 직간접적 교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종책 점검과 공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대사회적 현안에 참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모습도 주목된다.

진우 스님은 9월 16일 전국비구니회 간담회를 마친 직후 신당역에 설치된 '역무원 스토킹피살사건'의 피해자 추모공간을 방문했다.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혜도 · 철우 · 정관 스님도 함께해 반야심경 봉독으로 추모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빠듯한 일정에도 추모 공간 방문에 대한 강경한 의지로 일정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2022년 장애예술인특별전-국민속으로, 어울림속으로'를 관람하기도 했다. 도슨트 안내를 받아 작품 60여 점을 꼼꼼히 관람한 스님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로운 작품세계가 불교적 가치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장애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이 불교계 안팎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만큼, 제37대 집행부 출범 이후 행보에 남다른 기대가 실리는 분위기다. 양한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종교지도자가 대사회문제와 사회적 약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직접 행보하는 모습 자체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제37대 집행부가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 받는 중생과 함께 하는 집행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구니종회의원 후보 10인 확정

전국비구니회, 9월 15일 제30차 운영위원회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에서 4년간 비구니 종회의원으로 활동할 10인의 추천후보가 확정됐다. 교학수행 분야에는 진상 · 철우 스님이, 포교분야에는 정운 · 혜도 스님이, 복지분야에는 정관 · 지인 스님이, 행정분야에는 법해 · 설해 스님이, 사회문화분야에는 혜성 · 진명 스님이 선출됐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3일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명의 후보자를 종단에 추천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는 9월 15일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제3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5개 분야에 출마한 13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최종 10명을 선출했다.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107명 가운데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됐으며, 비구니중앙종회의원후보선출위원회가 사전배포한 입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13인 입후보자의 정견발표에 이어 투표를 진행했다.비구니 종회의원 후보는 5개 분야별 각 2인이 선출된다. 이에 입후보자가 각 2인씩 출마한 교학수행분야와 행정분야는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50조에 의거해 선출을 결의하고 선거절차 없이 법해 · 설해 · 진상 · 철우 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입후보자가 각 3인 출마한 포교분야와 복지분야, 사회문화분야는 경선으로 진행됐다. 3개 분야당 각 2인, 총 6인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선거 결과 포교분야에는 정운 스님과 혜도 스님이 각각 75표, 71표를 확보해 당선됐으며 자용 스님은 24표에 그쳤다.

회칙 선거법 제정후 첫 선거
무투표당선 교학 · 행정분야
진상 · 철우 · 법해 · 설해스님

3개 분야 입후보자 투표진행
혜성 · 진명 · 정운 · 혜도 스님
정관 · 지인 스님 최종 선출돼

복지분야에는 정관스님과 지인 스님이 각각 77표, 48표를 받아, 45표를 받은 청욱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또 사회문화분야는 혜성 스님과 진명 스님이 각각 66표와 77표를 획득해 후보로 선출됐다. 대안 스님은 27표에 그쳤다.

당선된 후보스님들은 각기 분야에서 활동계획과 포부를 밝힌 데 이어, 전국비구니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서로 화합하며 비구니 위상 강화와 권익 보호 및 확대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이번 비구니 종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경과를 설명하며 "10명의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화합하는 가운데 비구니 차별 조항을 개선하고 비구니 권익과 수행환경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출위원장 본각 스님은 "오늘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한 위원 스님들을 보니 축제하는 마음이 든다"며 "다만 재단법인 선학원 등 미등록법인 도제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갖지 못한 운영위원 스님들이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종회의원 스님들의 활동으로 이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선거를 지켜보는 마음이 감개무량하다. 당선되신 의원 스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며 "비구니로서 자립하고 절대적으로 화합을 최우선해서 사람이 아니라 전국비구니회라는 조직을 도와주길 바란다. 앞으로 종단과 전국비구니회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자비와 상생의 발우공양
2022년 제13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2009년 제1차를 시작으로 2022년 제13차를 맞이하는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수행식이면서 자연식인 사찰음식을 일반대중이 좀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사찰의 전통음식문화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자비와 상생의 발우공양'이라는 주제로 평등과 절약,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의 정신 속에 자연과 생태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우공양의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22년 10월 7일(금요일) ~ 10월 8일(토요일)
▸장 소 : 수원 봉녕사 경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YouTube 봉녕사
※ 본 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금)

시 간	행사일정
07:00 ~ 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셋팅
09:00 ~ 10:1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10:10 ~ 11:10	비빔밥 퍼포먼스
11:10 ~ 12:00	육법공양
12:00 ~ 12:50	발우공양 시연
12:50 ~ 13:40	지견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3:40 ~ 14:30	우관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4:30 ~ 15:30	헌다례 시연

10월 8일(토)

시 간	행사일정
09:30 ~ 10:30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졸업식
10:30 ~ 11:10	육법공양
11:10 ~ 12:00	탁발순례
12:00 ~ 12:50	선재스님 사찰음식 특강
12:50 ~ 13:40	선재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3:40 ~ 14:30	여거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4:30 ~ 16:30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2부 : 퓨전국악그룹 퀸 공연 봉녕사 우담화합창단 공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SUWON CITY